



기획시리즈



임경빈
아카시아 연구회장

조경수목산책 (XVII)

— 뽕 나무 —



1. 뽕나무

소나무, 닥나무, 뽕나무, 대추나무, 밤나무, 배나무, 대나무 등은 우리 민족의 삶과 가장 가까운 인연을 맺고 있던 나무라고 생각된다. 뽕나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조선조 태조 이성계가 3년 서기 1394년에 한양으로 도읍을 옮길 때 무학대사 등 많은 지사(地師)들이 참여했다. 이것은 지리풍수설의 타당성을 인정한 태조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고 정도전같은 중신(重臣)도 가담했다. 1395년에 창건된 왕조의 정궁(正宮)이 바로 경복궁이다. 경복궁이란 명칭은 시경 대아(大雅) 기취(既醉)에서 나왔다고 한다.

◀ 정선뽕나무의 줄기
강원도 정선군청 앞. 1994. 9. 30

기취이주 既醉以酒
 기포이덕 既飽以德
 군자만년 君子萬年
 개이경복 介爾景福

당신의 술로서 이미 취했으며
 당신의 덕으로 이미 배불렀소
 임금이며 만년을 사소서
 당신의 복이 크소서

큰복(景福)의 어휘를 따서 경복궁으로 이름지었다는 것이다. 경복궁 남쪽에 안산(案山)으로서 남산 당시의 명칭 목덕산(木覓山)이 있는데 이 산의 생김새가 누에에 닮아 잠두봉(蠶頭峯)이란 별명이 있었고 말하자면 남산은 풍수잠(風水蠶)이었다. 그래서 서울의 정기를 돕고 그것을 유지하자면 누에의 먹이가 되는 뽕나무가 많아야 된다는 이론을 낳게 되었다. 그래서 서울에는 뽕나무를 많이 심게 되었다. 지금도 서울에는 잠실이란 지명이 있고 그곳에는 뽕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창덕궁(昌德宮) 안의 수목원에 나무가 식재된 내력을 살펴보면 태종 9년(1409)에는 뽕나무가 식재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지리풍수설로 본 서울의 힘의 양성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한 일이라고 믿어진다. 그 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강 하류쪽에 밤섬이란 섬이 있는데 이 섬은 지난날 뽕나무 섬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뽕나무가 많았고 양잠이 성했으며 그것을 가업으로 해서 섬 안에 거주



▲무화과의 잎. 독일 프라이부르크 1988. 7. 26

하는 농가의 살림살이는 넉넉했다고 한다.

경국대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잠실 동서쪽 근방에 해마다 2월에 어린 뽕나무를 심고 씨를 뿌리도록 한다. 뽕나무의 수를 계산해서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배양하도록 한다. 밤섬의 밭을 경작할 때에는 뽕나무를 상하지 않게 하고 각 부서에 소속되는 뽕나무 수를 치부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감독한다. 이것을 소홀히 하는 관리의 죄를 묻는다. 잠실의 경우 대호(大戶)는 뽕나무 300그루, 중호(中戶)는 200그루, 소호(小戶)는 100그루를 배양토록 하고 주인이 없는 야생의 뽕나무도 벌채를 금한다. 범한 자는 죄를 묻는다.」

밤섬 뿐만 아니라 남산이 바라보이는 곳에는 뽕나무의 식재가 권장되었던 모양이다. 말하자면 서울의 생기는 뽕나무를 심으므로 얻어질 수 있었고 당시 서울

의 경관 풀이를 낳게 한다.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남산의 산기슭에는 군데군데 뽕나무를 심어 둘 만하나 지금은 찾아볼 길이 거의 없다. 이러한 사연들도 있어서 뽕나무는 우리 민족의 가까이에서 항상 자라고 있었다. 남자가 세상에 나서 장가를 들 때는 명주 바지와 저고리 그리고 명주 두루마기를 입고 기분을 휘날려 보는 우리 민족의 의상문화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도 뽕나무의 덕택으로 보아야 한다.

뽕나무과(科)라는 식물의 분류 단위가 있다. 과 아래 단위로 속(屬)이 있는데 뽕나무과에는 무화과나무속, 구지뽕나무속, 닥나무속 그리고 뽕나무속 등 4가지 속이 있다. 이 중 무화과나무는 꽃이 열매 안쪽에 들어 있는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쉽게 구별이 된다. 꽃이 머리 속에 숨어 있다고 해서 은두화서(隱頭花序)라고 말한다. 다른 3개의 속에 딸린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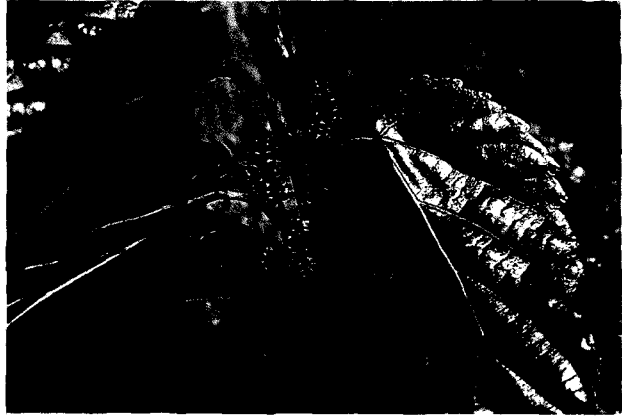
무들은 꽃이 모여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다. 구지뿡나무속의 나무는 잎에 거치(鋸齒, 톱니)가 없고 가지에 가시가 나 있어서 구별이 된다. 닥나무 속의 나무는 열매가 둥근 편이고 뿡나무속 나무의 열매는 좀 긴 편이다.

좀 학술적인 설명이 될 지 모르나 겨울눈(冬芽)을 덮고 있는 비늘조각(芽鱗, 아린)이 닥나무 속은 2~3개이나 뿡나무 속의 눈은 3~6개의 비늘조각을 가져서 구별이 된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 1. 꽃은 열매 안쪽에 있다. 무화과속
- 1. 꽃은 밖에 나 있다. 2
- 2. 거치가 없고 가지에 가시가 있다. 구지뿡나무속
- 2. 거치가 있고 가시가 없다. 3
- 3. 열매가 둥글다. 닥나무속
- 3. 열매가 긴 편이다. 뿡나무속

우리가 식물의 종류를 체계있게 분류하는 경우 과(科, family)를 유독 내세우고 강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에 대한 필자의 다음과 같은 설명은 문제를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구상에는 온갖 생명체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나타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



▲ 뿡나무의 잎. 가리왕산. 1995. 5. 31

여서는 생물학자들의 해설이 있고 상당히 납득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식물만을 우선 고려의 대상으로 할 때 그 모양과 생리, 생태, 소질에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 몸을 즉 그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아미노산)는 서로 비슷하다는 것이다. 사람이나 개구리나 새나 모두 몸을 만들어 주고 있는 재료는 비슷하다. 그 재료(집을 짓는 벽돌에 견주어 보자)를 어떠한 순서로 쌓아올리느냐에 따라서 소나무로도 되고 뿡나무로도 된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는 20종인데 말하자면 20종류의 벽돌이 있는 셈이다. 이 20개 종류의 아미노산이란 벽돌로 지구상의 수천만 종류의 생물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아니 앞으로도 지금 지구상에 없는 많은 생물을 새로 만들어 낼 수 있다.

온갖 생물과 하늘과 땅 그리고 물과 공기, 빛과 어둠을 창조한 창조주는 손수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온갖 생물의 과(科) 별로 집을 지어 그 과의 생물을 만들어 내는데 소요되는 벽돌을 과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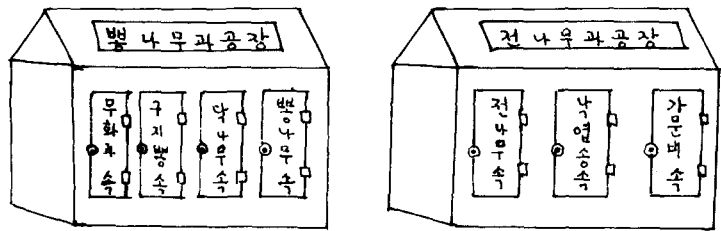


그림 1. 나무 창조공장의 모식도

나누어 주었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창조주는 뽕나무과의 집, 전나무과의 집 등 수많은 집을 창조하고 그 집(공장)에 벽돌을 나누어 주되 그 간에 사소한 차이가 있었다. 뽕나무과 공장에는 창조주를 돕는 공장장이 있었고 이 공장장 아래에 4분의 속장(屬長)의 신이 있었다. 무화과속의 신, 구지뽕나무속의 신, 닥나무속의 신 그리고 뽕나무속의 신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과장(科長)의 신이 아니고 그 아래의 속장(屬長)의 신들은 서로 다른 벽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다같은 벽돌로서 그 설계를 다르게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4분의 속신은 뽕나무과장인 신의 통솔아래 있어서 과장신(科長神)의 바탕설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 뽕나무과를 통솔하는 신은 나뭇잎을 딸 때 그 상처부위에서 흰색 즙액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공통설계를 각 속신(屬神)에게 명령했으며 속신들은 그 명령을 잘 지켜나갔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구지뽕나무, 닥나무, 뽕나무 등은 모두 한 집안식구로서 한 어른을 모신 동기사이다.

그림에 전나무과 공장건물이 보인다. 전나무과 식물의 창조를 통솔하는 과의 신은 전나무속의 신, 낙엽송속의 신 그리고 가문비나무속의 신 등 세 분의 신을 거느리고 있다. 그래서 3개의 방을 배정해 주었다. 이들 속의 신들은 지금 새로운 식물의 창조를 중단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새로운 종류의 생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위에 설명한 내용을 통해서 왜 우리가 과(科)를 관심있는 식물분류 단위로 삼아야 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동창생을 만나면 기쁘고, 형제자매를 만나면 모든 것이 이유없이 서로 통하듯이 같은 과(科)라는 공장에서 창조된 나무들이라면 비슷한 이치로서 서로 통하는 인연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의 과로 묶어 보는 것은 타당성을 지니고 있고 또 과학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2 뽕나무의 종류

우리나라에서 나는 뽕나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양잠을 위해서 많은 품종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설명은 이곳에

하지 않는다.

뽕나무 속

- 1. 잎의 거치가 날카롭다. ... 뽕나무
- 1. 잎의 거치가 날카롭지 않다. ... 2
- 2. 잎 표면에 털이 있다. ... 돌뽕나무
- 2. 잎 표면에 털이 없다. ... 3
- 3. 잎 끝이 꼬리 모양으로 길다. ... 산뽕나무
- 3. 잎 끝이 꼬리 모양이 아니다. ... 뽕나무

산뽕나무

산뽕나무에는 꼬리뽕, 가새뽕 등 몇가지 변종이 알려지고 있다. 특히 가새뽕은 잎이 깊게 갈라지고 키가 낮은 편이고 관목상이며 측맥에 따라 약간의 잎살이 남아서 붙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

산뽕나무는 산상(山桑), 염상(鹽桑), 자(柘), 여상(女桑), 화



▲ 가새뽕나무. 제주도. 1994. 6. 7

상(花桑), 자상(柘桑), 염목(鹽木)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염자는 산뽕나무 염으로 읽는다. 전국적 분포를 보인다.

산뽕나무는 중국, 대만, 일본, 만주에도 있는데 『모루스 봄비키스』(Morus bombycis)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다. 봄비키스란 말의 뜻은 누에 또는 명주(絹, 실크, silk)를 뜻한다. 그런데 뽕나무 잎은 형태의 변화가 심해서 한 가지 위에 달리는 뽕잎이라도 그 모양, 잎의 갈라짐 등 차이가 심하다. 따라서 뽕나무를 볼 때에는 성숙한 나무의 성숙한 가지 위에 달리는 일반 경향의 잎을 보고 따질 필요가 있다.

몽고뽕나무

몽고뽕나무는 몽고상(蒙古桑) 또는 조선상(朝鮮桑)이라는 이름을 가지며 우리나라 북부지방 그리고 만주 및 몽고지방에 분포해 있다. 잎의 거치가 날카롭고 잎표면이 거칠다. 학명은 모루스 몽골리카(Morus mongolica)이다. 몽골리카는 몽고지방을 뜻한다.

뽕나무

뽕나무는 백상(白桑), 당상(唐桑), 진상(眞桑), 재배상(栽培桑) 등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 나무를 흔히 오디나무 또는 오디나무로 부르기도 한다. 잎은 누에 사육에 쓰이고 그 밖에 제지용(製紙用), 약용, 기구제작용, 조각재, 열매는 식용으로 쓰인다.

잎의 거치의 끝은 둔한 편이다. 중국, 만주에도 분포하고 시경(詩經)에는 곳곳에 뽕나무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이 뽕나무 백상(白桑)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잎을 철선자(鐵扇子)라고도 말하며 열매의 이용가치 때문에 상심수(桑椹樹)라고도 부른다. 심(椹)자는 오디 심으로 읽는다.

노상(魯桑)

중국 양자강 하류에 있는 경관의 명소 항주(杭州) 지방은 양잠으로 이름나 있고 좋은 비단이 생산되고 있다. 그 지방에는 넓은 뽕밭이 있는데 그곳에서 개량된 뽕나무로서 노상이 있다. 잎이 크고 광택이 강하며 잎표면은 평활한 편이다. 노상은 뽕나무의 변종이고 양잠용으로 흔히 재배되고 있다.

구지뽕나무 속

구지뽕나무(또는 꾸지뽕나무)는 자목(柘木)으로 말하고 잎겨드랑(葉腋, 엽액)에는 가시가 나 있는데 이것은 가지가 변해서 된 것이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나무를 가시뽕나무(刺桑, Hariguwa)라고 말한다. 필자가 어린 시절 자라온 고향마을은 소백산 줄기 남쪽 산촌이었는데 딱 한 그루의 구지뽕나무가 우리 집 앞 길가 도랑 옆에서 있었다. 키가 크지도 않고 다른 나무 사이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어떤 영문인지 딱

한 그루의 구지뽕이 서 있었다. 그 가시를 만져보고서는 무서움에 그 나무를 멀리한 것도 그때 내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다. 지금 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람이 심어준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동네 안에 단정한 나무의 구지뽕나무, 그 운명이 기구한데 그 후손이 이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구지뽕나무는 결뿌리부터 싹이 돌아나서 퍼져나가는 성질이 있지만 그것도 그러한 공간이 주어지고 이웃하는 나무와의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이 나무는 어린 가지에 짧은 털이 있고 앞에 말한 가시의 길이는 3cm에 이르기도 한다. 자웅이주(암나무와 수나무의 구별이 있음을 뜻한다)이고 암나무의 열매는 직경 2.5cm쯤 되는 구형(球形, 공모양)이다. 꽃잎과 포(苞)는 육질로 되어 늦가을에 붉게 익는다. 잎이 단단한 편이지만 누에의 먹이로도 된다. 껍질과 뿌리는 약용으로 되고 목재는 활을 만드는 재료로 또 노랑염료를 얻는 데에도 이용되었다. 활재료로 좋아서 구지뽕나무를 궁간목(弓幹木)으로 말했다. 세조 13년(1467년) 10월 조에 활 만드는 사람 한계지 등을 경기도 양평, 가평, 강원도 춘천 등지에 보내 궁간목을 채집했다는 기록을 읽을 수 있다.

遺弓人韓繼之等于 京畿楊根平
加平江原道春川等邑取弓幹木

세종실록의 부록으로 볼 수 있는 세종지리지(世宗地理志)에 보면 경기도, 충청도 그리고 황해도가 공간목의 생산지라고 지적되어 있다. 옛적 전쟁이 활과 칼과 창을 무기로 한 것을 생각하면 구지뽕나무의 소용은 무척 컸을 것이다. 열매는 식용으로 되고 과실주(果實酒)의 재료로도 된다.

3. 뽕나무 권장의 역사

우리나라에 있어서 뽕나무의 재배가 기록으로 나타난 것은 신라의 민정문서(民政文書)인데 신라 촌락문서(村落文書) 또는 균전성책(均田成冊)으로도 말한다. 민정문서는 1933년 일본 동대사(東大寺)의 보물창고 정창원(正倉院)에서 발견되고 1953년에 일본인 노무라(野村)에 의해서 소개되었다. 이 문서는 신라 경덕왕(景德王) 14년(755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이 고문

서는 두 장으로 되어 있고 명필해서(楷書)로 되어 신라의 생생한 육필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문서는 지금 충청북도 청주라고 추정되는 4개 마을의 생태를 생생하게 수량을 밝히면서 기장한 것으로 4개 마을의 뽕나무 수는 1235그루로 되어 있다. 당시 양잠이 되어 명주는 중국에까지 수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11년조에 당시 전쟁이 심해서 잠부(蠶婦, 누에치는 아낙네)는 뽕 따는 때를 잃었다는 내용이 있고 고구려본기 평원왕(平原王) 25년(583)에는 백성들에게 농사와 양잠을 장려했다 하며 백제본기 의자왕 20년조(660)에 역시 농사와 양잠을 권장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삼국유사 후백제 견훤조에 나라가 편안함에 곳곳 농업과 양잠을 즐겼다 했다. 그래서 오랜 예전부터 한반도는 양잠을 숭상했

음을 알 수 있다. 고려사에 현종(顯宗) 19년(1028)에는 뽕나무를 심게 하여 양잠을 조장했다 하였으며 인종(仁宗) 23년에는 입지를 선택해서 뽕나무, 밤나무, 옷나무, 닥나무를 심게 했고 명종(明宗) 18년에도 그와 같이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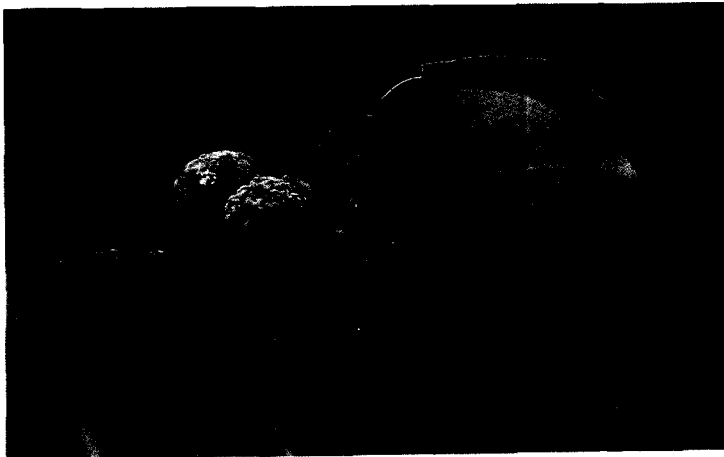
태종 16년(1416)에는 뽕나무, 구지뽕나무 등을 심고 보호해서 넓게 양잠업을 권장했고 세조(世祖) 원년(1455)에도 농상은 의식(衣食)의 근본이라 해서 뽕나무의 수를 조사해서 보호하도록 했다.

뽕나무 재배의 기술에 대하여 언급한 책에는 산림경제, 목민심서, 저죽전사실(楮竹田事實),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등이 있다.

이처럼 뽕나무는 고대부터 소중한 나무였다.

4. 뽕나무 노거목

뽕나무는 크게 자랄 수 있는 나무인데도 큰 나무를 잘 볼 수 없다. 그것은 누에먹이로 잎이 해마다 모조리 채집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뽕나무로 보아서 견딜 수 없는 노릇이다. 나무는 자기가 잘 자라자고 잎을 내고 잎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저축하고 크게 되자는 것이지 누에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만 잎을 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도 해마다 한 잎도 남기지 않고 완전 수탈을 당한다는 것은 분통이 터질 일이다. 그러나 사람은 아랑곳할 것 없이 잎을 따. 그



▲ 구지뽕나무 제주도 1990. 9. 16

래서 뽕나무가 큰 나무로 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그나마 생명을 부지해서 하늘의 햇볕 아래 남아있는 것만도 다행이다. 인조섬유가 만들어져서 명주실을 크게 대체하게 된 것은 뽕나무로 보아서는 그렇게 다행일 수 없는 일이고 또 누에치는 농가가 없다시피 된 것도 뽕나무로 보아서는 한 숨 돌릴 일이다. 약으로 쓴다고 뿌리를 캐가고 종이 만든다고 가지를 치고 껍질을 쓰고 난 속줄기는 땀감으로 또는 체반 만드는 재료로 하고 뽕나무는 하나 버릴 것이 없이 인간에게 희생되었다.

葉以飼蠶 皮以造紙 又可爲織履
骨以爲箔 骨可當柴 不可燒煮魚肉
食之 無可棄也

뽕나무 가지로 고기를 익혀서 먹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인간이 너무하다는 생각에 뽕나무의 최후의 저항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더구나 고기를 뽕나무 가지로 굽거나 끓여서 먹는다면 아무래도 인간이 뽕나무를 끝내 너무 학대했다는 느낌이지만 사람은 이에 한 수 더 떠서 뽕나무 재를 상회(桑柴灰) 또는 상회(桑灰)라 해서 각종의 약효를 인정했고 눈병치료에 쓰는 세제(洗劑)원료로 좋다고 본초강목에 기록되고 있다. 뽕나무는 죽어서 그 몸까지도 인간에 바치는 최후를 보여 준다.

이러한 팔자를 가진 뽕나무가

어찌 거목으로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노거목으로 되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뽕나무를 우리는 아직 가지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 정선군 군청 앞에 큰 뽕나무가 있다길래 나는 1994년 9월 30일 금요일 서울을 떠나 도중에 경기도 이천에 있는 반룡송이란 소나무를 보고 원주 시내에서 투숙했다. 이튿날 정선군청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두 그루의 뽕나무를 보았다. 뽕나무도 이처럼 크게 자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는 놀랐다. 군청건물에 가까운 쪽(북쪽)의 나무를 제 1호목이라 하고 먼 쪽(남쪽)을 제 2호목으로 해둔다. 그러나 이 두 나무는 서로 인접해서 서 있다.

이 나무의 주소는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이고 강원도기념물 제 7호로 지정되어 있다. 두 나무 모두 수령 500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 1호목(북쪽나무)은 뿌리목 부근 줄기둘레가 353cm, 가슴높이 줄기둘레 302cm, 지하고(枝下高) 350cm로 측정되었고 줄기가 남쪽으로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땅위 4m 쯤 되는 곳에서 줄기는 다시 곧게 서고 5m 쯤 되는 곳에서 줄기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다. 수관은 북쪽으로 10m, 남쪽으로 8m, 동쪽으로 6m, 서쪽으로 9m쯤 확장되고 있었다. 수피가 세로로 갈라지고 골과 골 사이의 넓이는 3~4cm에 이르고 있었다.

제 2호목(남쪽나무)은 줄기가



▲정선뽕나무의 전경. 1994. 9. 30



▲정선뽕나무의 수피
1994. 9. 30

남쪽으로 비스듬이 기울어지고 지면과의 경사도는 약 70도로 보였다. 뿌리목 부근 줄기둘레는 285cm, 가슴높이 줄기둘레 257cm, 지하고 330cm로서 1호목보다는 작은 편이다. 수고는 두 나무 모두 25m쯤으로 추정되었다. 그곳에 안내판이 서 있었고 이 나무에 대한 크기가 기록되어 있었으나 위에 말한 제원(諸元)은 필자가 직접 조심스럽게 측정한 값이다.

이 두 나무의 보호상태는 당시 매우 미흡했다. 이 나무는 사실상 도로 위에 서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점유 면적이 너무 좁고 또 길바닥이 포장되어 있어서 나무뿌리의 호흡과 건조가 염려되었다. 그리고 서쪽편은 이 나무에 접근해서 시멘트블록 담이 쳐 있고 담 건너편은 개인 소유의 택지로서 이 나무 뿌리를 보호해 준다는 보장이 없어 보였다. 정선군으로서 빨리 이 나무의 생육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귀중한 나무로서 사실은 천연기념물로 하루 빨리 승격이 되어야 할 나무라고 보았다. 우리는 이러한 일에 인식해서는 안된다. 귀중한 문화적 유산으로 보아야 한다.

독일의 보덴제(Bodensee)호(湖)는 스위스, 오지리 그리고 독일 3개국으로 둘러싸인 큰 호수인데 이 호수 가운데로 향해서 튀어나간 섬 비슷한 45헥타의 면적을 가진 꽃섬(Floral Isle)이 있다. 마이나우(Mainau)식물원으로 부른

다. 이 섬의 높은 언덕에는 아름다운 성이 있고 이곳이 식물원으로 만들어진 것은 1853년 경이다. 이 섬을 연결하는 교량이 있고 섬의 지질은 알칼리성이다. 그곳에 심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외래수종은 산성땅을 좋아하므로 이러한 식물을 살리기 위해서 산성의 흙을 객토로 쓰고 비배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쏟고 있다. 메타세와 이어의 거리가 있는가 하면 장미의 길이 있다. 나는 이곳에서 뽕나무(Morus alba)의 거목을 보았다. 물론 어디에선가 구해서 심어준 것이겠으나 그 거구로 말미암아 풍기는 당당한 위엄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값진 경관가치를 지니는 나무였다. 우리나라 공원에도 이러한 뽕나무 거목이 있으면 했다.

1984년에 산림청에서 간행한 보호수지(保護樹誌)에는 9516 그루의 보호수가 기재되어 있다. 보호

수는 산림법 제 67조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보호대상으로 하는 나무로서 그 품격에 따라 시도(市道)나무, 시군나무, 읍면나무, 마을나무 등으로 나누고 있다.

그 많은 나무 가운데 앞에 말한 정선군청 앞의 뽕나무는 강원도 기념물로 지정되어서인지 보호수지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상주군 은측면 두곡리에 있는 수령 300년으로 추정되는 뽕나무 한 그루가 시군나무의 품격으로 기록되어 있다. 뽕나무로서는 이 한 나무가 유일하게 보호수지에 올라 있다. 수고 12m, 가슴높이 줄기둘레 3.1m에 이르고 당산목(堂山木)이며 상주군 기념물 제 1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나무의 뽕잎은 1972년 12월 보호수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따지 않고 있었다 한다. 나뭇가지의 발달을 보면 동쪽으로 2.3m, 서쪽으로 4m, 북쪽으로 4.3m나



▲ 뽕나무의 거목. 독일 마이나우 식물원. 1988. 7. 20

뽕쳐 있다. 이 나무보다 더 오래 된 뽕나무가 상주군 이안면 문창리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상주에는 이처럼 큰 뽕나무가 많았고 양잠으로서 유명한 곳이었다. 그래서인지 일정시대에 상주에는 농잠학교가 유일하게 설치된 적이 있다. 이 한 나무로서 누에 1장을 기를 수 있었다는 말은 이 나무가 거목임을 말해주고 있다. 용하게도 사람의 시달림을 견디면서 이쯤까지 살아온 이 나무는 장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 나무 줄기는 지상 2m 쯤 되는 곳에서 3갈래로 갈라지고 장엄한 품격을 보여주고 있다.

평안남도 성천군 사가면 장림리에 소위 사가상림(四佳桑林)이란 뽕나무 숲의 존재가 기록으로 남아 있다. 이것은 발독을 따라 심어지고 방풍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아지는데 두목(頭木) 작업을 해서 수고는 4m 쯤이고 줄기의 가슴높이 지름은 큰 것은 70cm에 이르는 것들이다. 지금 이 나무들이 그냥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나 하루가 멀다고 만사가 잘 변하고 있는 요즘 뽕밭이 푸른 바다로 변해버린 운명을 당하지는 않았나 궁금하기도 하다. 뽕나무도 손질하고 보호해주면 거창한 몸집을 가지는 나무로 클 수 있다. 그러한 나무를 우리도 좀 얻었으면 한다.

5. 제민요술의 뽕나무

제민요술(齊民要術)이란 책은 현존하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농서(農書)이다. 전체 10권으로 되어 있고 남북조(南北朝) 북위(北魏)의 가사협(賈思勰)이 지었고 6세기 전반에 이루어 졌다. 저자는 지금의 산둥현(山東縣)의 태수(太守)였다. 그는 각종 문헌을 고찰, 인용하면서 이 책을 만들었다. 그 책 5권제에 뽕나무(桑)와 꾸지뽕나무(柘)에 대한 서술이 있다. 흥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뽑아 본다.

이아(爾雅, 옛 중국의 사전)에 말하기를 뽕나무에는 암수의 구별이 있어 오디를 심(楸)이라 하고 수나무를 치(梔)라고 한다. 사람들은 키 낮은 뽕나무로서 가지가 긴 것을 여상수(女桑樹)라고 말한다. 또 염상(黓桑)이란 산상(山桑, 산뽕나무)을 말하고 뽕나무에 닳았으나 목재는 활이나 수레바퀴를 만드는 데 알맞다.

수신기(搜神記)에 다음 이야기가 있다. 예전 어떤 사람이 먼 곳으로 떠나 있었다. 집에는 한 아가씨(딸)와 말 한 필이 남아 있었는데 아가씨가 아버지를 그리워 하며 말에 올라앉아 장난질을 하면서 말에게 말하기를 네가 만일 우리 아버지를 모셔 온다면 너에게 시집가겠다 했다. 말은 고삐를 끊고 뛰어 달아나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갔다. 아버지는 집에 수상한 일이 난 것으로 알고 이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뒤에 말이 딸을 보고 노하면서 사납게 굴었

다. 아버지가 이상하게 여겨서 딸에게 물었더니 딸이 조용히 그 사연을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말을 활로 쏘아 죽이고 그 껍질을 마당에 버렸다. 딸이 가족 곁으로 가서 차면서 말하기를 네가 말의 신분으로서 사람을 마누라로 얻겠다니 말이 되느냐. 지금 죽어서 가족으로 된 처신을 아느냐. 할 말이 있으면 말해 보라.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족이 분명히 일어서서 그 아가씨를 감싸서 달아났다. 뒤에 큰 나뭇가지 위에 달려서 누에로 화신했으며 나중에 나무 위에 고치를 만들게 되었다. 누에를 여아(女兒)로 표현하는 이유는 이러한 전설에서 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나무를 뽕나무라고 이름지었다. 상(桑)의 음은 상(喪)이다.

뽕나무 열매가 익을 무렵 흑노상(黑魯桑)의 오디를 따다. 노상 백크루만 있으면 누에를 쳐서 비단과 옷감이 풍족하게 된다. 열매를 따면 그날 중으로 물로 처리해서 종자를 빼내고 햇볕에 건조시킨 뒤 밭이랑에 뿌린다. 풀을 잘 뽑아준다. 뽕나무는 밀식하도록 하고 소식(疎植)을 피하도록 한다. 뽕나무가 싫어하는 것은 뿌리가 상처를 받는 일인데 소식을 하면 그 사이에 다른 농작물을 키우게 되고 그러자면 삼질, 호미질로 자연 뽕나무 뿌리가 상처를 받게 되는 까닭이다. 심고 나서 2년이 지난 뒤부터 뽕잎을 따도록 하고 뽕나무 사이에 콩이나 팥을 재배

하는 것은 좋다.

이런 뜻을 반영한 우리나라 산림경제의 내용이 있다. 즉 5월경 오디가 익을 때 잎이 크고 오디가 적게 달리는 노상(魯桑)의 오디 중 실한 것을 골라 따서 번식용으로 한다. 뿌리부터 나오는 움푹을 제거하고 콩같은 것을 간작해서 땅 힘을 도와 주도록 한다. 이 내용은 좋은 품질의 양잠용 나무를 선발해서 개량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 있다.

뽕잎을 딸 때에는 가지를 휘잡아 딸 수도 있지만 탄 뒤에는 가지를 원래 위치대로 되돌려 놓도록 한다. 그리고 뽕잎과 가지를 끊어내는 때는 한낮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침 저녁으로 일을 하면 나무가 더위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중국에서는 건조한 오디가 흉년을 대비해서 공을 세운 일이 있고 전쟁용 휴대식품으로도 한 몫한 일이 있다. 하북(河北)의 대개의 집에서는 백석(百石)을 채집하고 적게는 수십석을 채집한다고 했으니 오디의 산출액이 비상한 수치에 이르렀음을 말해준다.

꾸지뽕나무도 뽕나무처럼 해서 묘목을 키울 수 있다. 풀을 알뜰히 뽑아 준다. 숙아낸 꾸지뽕나무의 줄기는 불노장(不老杖)으로 이용할 수 있다. 10년이 지나면 의자를 만드는 재료로 되고 15년이 되면 활을 만드는 데 쓸 수 있고 나막신의 재료로 된다. 20년이 지나면 차량재로 된다. 꾸지뽕나무

의 잎으로 누에를 치면 좋은 실을 얻을 수 있다. 비파와 거문고의 줄을 만들면 그 소리의 맑고 그윽함은 다른 줄과는 대비가 되지 않는다.

이 책은 양잠의 기법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무 목(木)자를 동방신목약(叢)자 아래에 붙인 것이다. 전술(典術)에는 뽕나무는 기성(箕星)의 정기라 했다.

여기에 필자의 견해를 더해 보겠는데 그것은 뽕나무 상(桑)자가 무엇을 상징하는 상형문자이겠는



▲꾸지뽕나무의 가시. 제주도. 1990. 9. 16

본초강목 등의 뽕나무

본초강목에는 뽕나무의 약효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이다. 뽕나무에 대한 설명도 있으나 문헌인용의 중복 때문에 이곳에 이미 설명한 내용과 중복이 없지 않다. 가령 이아라는 책에 나오는 뽕나무의 설명이 제민요술에서 이미 설명한 것처럼 중복이 되어 있다. 여기서는 중복을 피하면서 흥미 있는 대목을 발췌해 본다.

열매를 심(楸)이라 한다. 설문해자(設文解字)에 쵸의 음은 약(若)이다. 약은 동방(東方)의 신목(神木)의 이름이고 그 글자는 상형(象形)이다. 뽕나무(桑)라는 것은 누에가 잎을 먹는 신목이다.

가 하는 향간의 논의 비슷한 것이 있었고 풀이에 나무에 잎이 많이 붙어 있는 모양에서 얻어진 글자이다, 또는 오디가 많이 맺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또는 나무 위에 뽕잎을 따는 사람의 손이 많은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등등이다. 이시진의 본초강목에 소개된 설문해자라는 책 내용이 매우 타당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위에 말한 몇가지 내용은 타당성을 잃게 된다. '뽕나무 상자'의 기원에 대하여서는 설문해자의 내용을 받아 들이는 것이 좋겠다.

또 고서에 뽕나무의 가치는 가장 신(神)한 것이라 했고 인간들에 주는 물질적 효용도 이만저만

이 아니라 했다.

산뽕나무는 잎이 길고 끝이 뾰족하며 활재료로 된다고 했다. 백상(白桑)은 잎이 크고 두터우며 자상(子桑)은 오디가 먼저 나타나고 잎은 그 뒤에 나타나며 열매로 번식시키는 것보다는 가지를 휘어 늘려서 분식(分植, 휘문이)하는 편이 낫다. 종수서(種樹書)에 보면 뽕나무는 꾸지나무(構를 이와같이 해석했다)에 접을 하면 잎이 커지고 뽕나무 뿌리 아래에 거북등을 묻어두면 벌레의 해를 받지 않는다.

뽕나무뿌리껍질(桑根白皮)은 어느 때나 채집할 수 있으나 땅 위로 올라온 뿌리껍질은 독이 있어서 사람을 죽인다. 동쪽으로 뽕은 뿌리는 얻기 쉽고 습기가 있는 강가에 서 있는 나무는 뿌리를 땅 위로 노출시키는 경우가 많다. 앞에서 말했지만 땅 위로 나타난 뽕나무 뿌리를 마액(馬額, 말의

이마)이라 하고 독이 있어 사람을 죽인다. 뿌리의 표피를 제거할 때에는 구리칼을 사용하도록 하는데 쇠붙이 또는 납(鉛)은 약효를 줄인다. 때로 나무 줄기의 백피(白皮)도 쓸 수 있다고 한다. 물로 끓여서 얻은 갈색의 염료는 오래 가고 색갈이 빠지지 않는다.

참고로 다음 삼재도회(三才圖會)의 원문의 일부를 들어둔다.

桑樹本草有桑根白皮 其葉飼蠶結實爲桑椹 有黑白二種 桑之精英盡在於椹 桑根白皮東行根益佳 肥白者良 出土者不可用殺人 味甘性寒無毒…….

오디를 먹으면 소갈(消渴)을 멈추게 하고 오장, 관절통에 좋고 혈기를 돌구어 준다. 오래 먹으면 배고픔을 모르게 되고 마음을 편안하게 진정시키고 총명해 지며 머리털을 검게 해서 늙음을 막는

다. 많이 채집해서 건조시키고 가루로 만들어 꿀로 환을 만들어 매일 이것을 복용하면 좋다.

위(魏)나라 무제(武帝)는 전쟁 중 식량이 넉넉하지 못했을 때 건조시킨 오디로서 병사들의 기아를 막았다고 하며 금(金)나라에 큰 기근이 있을 때 오디를 먹고 살아난 백성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한다.

서리가 내린 뒤에 탄 잎은 상상엽(霜桑葉)으로 동상엽(冬霜葉) 또는 신선약(神仙藥)이란 이름을 얻고 있고 약으로 쓴다. 당뇨병에 효과가 있다 한다.

이처럼 뽕나무는 뛰어난 약용 식물로 해석된다.

6. 길가의 뽕나무

맥상상(陌上桑)이란 중국 고대의 악곡(樂曲)이 있다. 전국시대의 진나부(秦羅敷)가 지은 것으로 되어 있고 책에 따라서는 염가나 부행(艶歌羅敷行) 또는 일출동남우행(日出東南隅行)으로도 제(題)를 붙이고 있다. 조(趙)나라의 가신(家臣) 왕인(王仁)의 마누라인 나부가 길가(또는 밭둑 길가, 즉 陌上)에서 뽕잎을 따고 있었는데 조왕이 이것을 보고 누대 위에서 연정을 품어 수작을 걸었으나 나부가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남편 자랑을 조왕 앞에 늘어놓는 우스운 연극과 같은 풍경을 읽을 수 있다.

맥상상의 줄거리가 흥미진진하



▲산뽕나무. 지리산. 1994. 5. 28



▲정선뽕나무의 잎. 1994. 9. 30

므로 그 내용을 이곳에 옮겨 본다. 뽕나무 발이란 옛적부터 남녀들이 비공개적인 사랑을 분출시키는데 알맞은 곳으로 이해되어 왔다. 처녀나 총각이나 뽕밭에 간다는 것은 사랑을 위한 이유있는 실마리로 이해되었고 무성한 뽕나무의 가지와 잎은 그들을 덮어 주는데 좋은 구실을 할 수 있었다.

일출동남隅 日出東南隅
 조아진씨루 照我秦氏樓
 진씨유호녀 秦氏有好女
 자명위나부 自名爲羅敷

해가 동쪽에 떠서
 진씨집 누대를 비춘다.
 그 집에 좋은 여자 있어
 그 이름 나부

나부선잠상 羅敷善蠶桑
 채상성남隅 採桑城南隅

소수청조상 素手青條上
 홍장백일선 紅粧白日鮮

나부는 누에고치 일 잘하고
 성남 쪽에서 뽕잎을 따다.
 흰 손은 뽕나무 가지 위에 있고
 붉은 두 볼은 햇볕 받아
 빛난다.

행자견나부 行者見羅敷
 하담날자수 下擔埤髭鬚
 소년견나부 少年見羅敷
 탈모저초두 脫帽著綃頭

지나가는 사람이 나부를
 보고선
 짐을 내리고 수염을 어루
 만지며
 소년이 나부를 보고선
 모자를 벗고 두건을 머리에
 얹는다.

경자망기경 耕者忘其耕
 서자망기서 鋤者亡其鋤
 내귀상노원 來歸相怒怨
 단좌관나부 但坐觀羅敷

밭 가는 사람은 밭 가는 일을
 잊고
 풀 뽑는 사람은 풀뽑기를 잊고
 집으로 와서 마누라와 다투는
 것은



▲뽕나무. 거문도. 1994. 6. 3

다만 나부를 보았기 때문이다.

〈주〉 • 자수(髭鬚, 윗 수염과 턱수염), • 초두(綯頭, 머리수건, 두건), • 동남(東南, 동쪽, 南은 뜻이 없음)

이제부터 원문은 버리고 뜻만 옮긴다.

조왕(大夫 또는 使君으로도 표현되고 있다)이 남쪽으로부터 와서 오마(五馬, 수레를 모는 다섯마리의 말)를 세우고 사자(使者)를 시켜 나부에게 묻는다.

진씨집 아름다운 여자
그 이름 나부.
나부의 나이 얼마이고
스물에는 미치지 못하고
열 다섯은 넘었겠소
사군 수레를 함께 타자고 함에
나부 앞으로 나아가 말문을
열어
사군은 마누라가 있는 몸
나부는 남편이 있는 몸
그 수작 거두시라
나의 남편은
천명을 넘는 기사(騎士)의
우두머리
흰 말 타고 검정 말 뒤 따르고
푸른 실 말꼬리에 달고
황금으로 말머리를 장식했고
허리에 찬 사슴머리칼은
천만금으로도 살 수 없소
열 다섯에 서기로 되고
스물에 조정의 대부(大夫)로

되고
서른에 시종이 되고
마흔에 성주(城主)로 되었소
피부는 백옥처럼 희고
푸석푸석한 수염은 남자답고
걸음걸이는 유하고

7. 서구(西歐)의 문명과 뽕나무

뽕나무속에는 약 12종의 뽕나무가 있고 북반구의 온대에서 아열대에 분포해 있다. 뽕나무속 중



▲가새뽕나무. 제주 성산일출봉. 1990. 7. 25

행동은 신중하며
수천명의 관리 중에서
내 남편이 뛰어나오.

뽕밭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나부의 대답함도 그러하고 이 말을 들은 조왕의 체면은 말이 아닌 것으로 되어 버렸다.
나부는 정말 아름다웠던 모양으로 공작동남비(孔雀東南飛)라는 한나라 시대의 가요에도 나부의 몸은 뛰어난 아름다움이 있었다고 했다.

이처럼 뽕밭은 문제의 곳으로 잘 등장한다.

대표적인 것은 모루스 알바(Morus alba)란 학명을 가진 뽕나무(白桑, white mulberry)와 모루스 니그라(Morus nigra)란 학명을 가진 검뽕나무(黑桑, black mulberry)이다. 검뽕나무는 페르시아 원산으로 영국으로 이입된 것은 로마사람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16세기 때부터 재배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양잠을 위해서는 백상족이 훨씬 좋다. 뽕나무는 잎에 유액(젓)이 있고 누에가 토해 내놓은 섬유는 이 유액의 점착성에 연유하는 것이라 한다. 옛적 서구에 있어서는 뽕나무는 조경의 목적과 열매를 이용하기 위해서 재

배되었다는데 독일에 있어서는 악마가 오디로 점정신을 닦는다 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먹지 못하도록 한다고 한다.

고대 페르시아부터 뽕나무는 유럽 남쪽에 전달되고 특히 이태리에 뽕나무가 많고 지금도 로마 등 도시조경수종으로 뽕나무가 심어지고 있다. 이태리 남쪽 폼페이에는 발굴유적의 도시인데 옛날 건물의 벽에 뽕나무의 조각이 나타나고 있어서 옛날부터 이 나무가 어떻게 평가되었는지를 짐작케 한다. 열매의 식용가치가 높게 평가되어서 그러한 목적으로 재배되었을 것이라 한다. 뽕나무는 사람이 늦은 편이고 열매를 얻자면 15년생은 되어야 한다. 봄이와도 뽕나무의 잎은 늦게 피어나는데 모루스(morus)라는 속명의 뜻은 늦음(delay)이라고 한다. 이 나무의 생리의 일면을 말해 준다.

1세기 시대의 로마의 저술가이며 박물학자였던 플리니(Pliny)는 뽕나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서술을 하고 있다.

『재배되고 있는 모든 나무들 중에서 뽕나무는 가장 늦은 철에 잎이 튼다. 추위가 지나지 않으면 싹이 트지 않는다. 그래서 나무들 중에서 가장 품격 높은 지혜로운 나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번 눈이 났다하면 하룻밤 사이에 작업이 끝나고 그 싹트는 힘은 매우 강하다. 때로는 눈이 터지는 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다.』

이것이 흥미로운 줄거리이다.

중국의 양잠의 역사는 오래되지만 유럽에 양잠술이 전달된 것은 5세기경이라 한다. 이태리에서는 1434년경까지 흑상(검뽕나무)의 잎으로 사육했으나 백상이 들어오자 흑상의 잎은 누에먹이로서 쓰이지 않게 되었다.

유럽에서 양잠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것은 16세기말 경이라 한다. 프랑스에서도 많은 뽕나무를 심게 되고 1608년에는 영국으로 들어갔다. 영국의 제임스 1세(James I)는 웨스트민스터 왕궁 부근에 뽕나무가든을 만들었는데 그때 식재된 나무 한 그루가 아직 남아 있다한다. 당시 뽕나무 식재가 권유되곤 해서 오래된 장원건물 부근 또는 정원에서는 뽕나무를 지금도 볼 수 있다고 한다. 이 뽕나무는 모두 흑상이었으므로 양잠에 성공하지는 못했다. 잎이 누에먹이로서는 알맞지 못했던 탓이다.

영국에는 뽕나무의 명목(名木)이 많다고 한다. 캠브리지대학교 구내에는 시인 밀턴(Milton)이 그의 생일을 기념해서 자신이 심어 놓은 뽕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밀턴의 뽕나무(Milton's Mulberry)라고 하며 정원사들은 그 나무를 손질하는 것을 명예로 여긴다는 것이다.

영국의 명문대학 이턴칼리지(Eton College)에도 뽕나무의 노거목이 있고 높이가 9m에 줄기둘레 2.5m에 이른다고 한다. 1609년 세익스피어도 제임스 1세가 만든 뽕



▲정선뽕나무의 가지발달. 1994. 9. 30

나무가든에서 뽕나무 묘목을 입수해서 뉴플레이스(New Place)라는 곳에 심었으나 1759년에 그 땅의 소유주에 의해서 끊기고만 일이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유럽에서도 오디는 설사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뿌리를 다려서 마시면 간장과 신장에 좋고 구충의 효과도 있다고 했다. 열매로 와인(mulberry wine)을 만들었는데가 하면 잼의 원료로도 이용했다.

신약 누가복음 17장 6절 믿음의 힘의 조에 다음이 있다.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니까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그대로 심어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이곳에 나오는 뽕나무는 검뽕나무라고 앞에서 이미 말했듯이 원래 페르시아 북부지방의 원산이나 성지(聖地)에는 곳곳에 심어져서 그 열매가 이용되고 있다. 예수가 본 뽕나무는 흑상(black mulberry)이다. 이 나무는 비교적 키 낮은 나무로서 수관이 뽕뽕하고 가지가 단단하고 8~12m의 높이에 이른다. 여름에는 좋은 그늘을 만들고 오래사는 나무로 알려져 있다.

성서 예제키엘 16장 10절과 13절에 다음이 있다.

“비단 걸음을 입혀 주었다. 모시옷에 비단옷에 수놓은 옷을 입고…”

유럽에 있어서 비단(명주)이 나타나는 것은 기원전 594년의 예제키엘의 시대이고 소르몬왕이 죽은 뒤 420년만의 일이라 한다. 중국에 있어서는 뽕나무가 양잠용으로 재배된 것은 기원전 4000년까지 소급된다고 한다.

미국에는 작은잎뽕나무(small-leaved mulberry)가 있는데 미국 인디언들이 열매 이용을 위해서 재배의 대상이 되었고 비오는 때 가지를 끊어 활을 만들기도 했다. 백색계 미국인들은 이 나무에 대해서 별반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었다.

8. 피라무스와 디스비의 사랑

디스비(Thisbe)는 바빌론의 소녀로서 피라무스(Pyramus)의 사랑하는 상대였다. 이에 대하여서는 로마의 시인 오비드(Ovid)가 전하는 이 두 사람의 비련의 이야기가 있다. 두 사람의 사랑을 두 집 부모들은 허락하지 않았다. 이러한 일은 세계 곳곳에 있다. 중국 한 나라의 가요 공작동남비(孔雀東南飛)도 바로 이러한 경우를 노래한 긴 가요이다. 여자는 거신부청지(擧身赴淸池) 즉 깨끗한 못에 몸을 던지고 남자는 자괘동남지(自掛東南枝) 스스로 나무 동쪽 가지에 목을 매었다는 사연이다. 사랑에 맹목적으로 너무 관여할 것이 못된다.

이야기를 되돌려 본다. 피라무스와 디스비는 어느 날 묘지 주변에 있는 뽕나무(mulberry) 그늘 아래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 약속

장소에 먼저 간 사람이 디스비였다. 그는 도착하자 그곳에서 소를 잡아먹고 있는 사자를 보고 질색한 나머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던지고 도망을 쳤다. 뒤에 그곳에 와 본 피라무스는 피 묻은 외투를 보고 사랑하는 디스비가 죽은 줄만 여기고 절망한 나머지 뽕나무 아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만다. 그 뒤 디스비가 그곳을 찾았을 때 피라무스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여지도 뒤를 따라 죽음을 택했다.

그곳 뽕나무는 두 사람의 피를 먹고 자라나면서 그 뒤에는 피색의 붉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로부터 뽕나무는 『앞서가는 불행(I shall not survive you.)』의 상징으로 되고 있다. 부모들이 사랑을 간섭하지 않았더라면 이 두 사람은 뽕나무 그늘이 아닌 더 밝은 곳을 만남의 장소로 택하였을지도 모른다.

다음 그림은 그 장면을 묘사한



◀그림2
피라무스와 디스비
그리고 뽕나무

그럼인데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1498년의 작품이다. 사랑에 눈이 어두워져서는 안된다는 원칙도 있고 어두워질 수 밖에 없는 이치같은 것도 있어서 서로 배반적이다.

9. 상심주(桑椹酒)와 상백피주(桑白皮酒)

금년에는 오디술을 좀 담아볼까 한다. 우리집에는 오디술이란 명찰을 붙여 둔 병이 몇 개는 있다. 싹살하면서 술 맛도 좋고 진한 붉음의 색깔도 괜찮다. 간혹 눈물잔으로 한 잔 정도 마셔보지만 드문 일이다. 그래서 오디술이 오래간다.

한방의 고전인 본초강목에 보면 『4월에는 무릇 상심주를 마시는 것이 좋다. 능히 백가지의 풍열(風熱)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있다. 옛부터 상심주는 보건강장제로 잘 알려져 있다. 과일주를 담는 요령은 별로 어려울 것이 없다. 오디(상심) 1킬로그램에 소주 1.8리터, 이에 설탕 600~800그램을 재료로 한다. 오디를 씻어서 물기를 없애고 건조한 뒤에 입이 큰 유리병에 오디를 한층 넣고 그 위에 설탕(얼음설탕이 더 좋다)을 뿌리고 또 그 위에 오디를 깔고 또 다시 설탕을 한켜 넣어 어기어기 이와같이 한다. 나중에 소주를 붓고 단단히 마개를 하여 냉암소에 둔다. 25도의 소주이면 3개월 만에, 35도 소주이면 두 달 뒤에,

43도 소주이면 한 달 뒤에 상심주는 성숙하게 된다. 설탕 대신에 1킬로 정도의 벌꿀을 넣을 수도 있으나 그 양은 단 맛을 선호하는 사람의 정도에 따라 가감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심주는 고급주에 속한다.

오디라던가 딸기같은 것은 원래 신맛이 적고 감미가 강하며 또 물기가 많은 열매이므로 기후가 더울 때에는 숙성 중에 있는 병을 닷세만에 한번씩 거꾸로 세워서 떠 있는 열매와 술이 서로 섞이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그냥 열매가 위에 계속 떠 있으면 표면이 부패할 우려도 있다. 오디는 물기가 많으므로 숙성시키는 도중 소주를 더 추가해서 넣어 줄 수도 있다. 추가량은 병 안의 액량의 3분의 1정도이면 좋다. 숙성이 되면 술을 걸러서 오디는 버리고 술만 병에 넣어 보관하는데 오래 저장 가능하하다.

상백피주란 뽕나무 뿌리의 껍질을 재료로 하는 술이다. 뿌리 껍질을 얻으면 바깥쪽의 얇은 외피는 제거하고 안쪽에 있는 두터운 백피를 얻어 잘 건조시킨다. 이것은 2~3mm의 두께로 잘게 썰어서 소주와 설탕으로 담그는 것이다. 껍질 100그램에 소주 1리터 그리고 설탕 300그램이면 된다. 앞에 말한 상심주 담는 요령으로 하면 되고 한달쯤이면 숙성이 되어 마실 수 있다.

상백피주는 기침가래를 없애고 이뇨와 부종에 효과가 있다고 한



▲익어가는 오디

다.

용량은 20cc 한 잔 정도를 때때로 마시는데 이에 상심주를 섞어서 마시면 맛이 좋다. 상백피주 그대로서는 약간의 쓴맛이 돈다. 철이 되면 거리의 길가에 아주머니들이 오디를 꺾고 과일주의 계절이라는 것을 알려 준다. 심심풀이로라도 한 번 시도해 보는 것이 과일주문화에 젖어보는 흐뭇한 때가 된다. 필자는 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생활의 재미로서 이러한 일을 해본다. 큰 돈도 들지 않는다. 그러나 오디값이 올라가고 있다. 금년 5월 중순경 청량리 시장에는 오디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모두 굵적굵직한 것을 보면 산뽕나무의 오디는 아니고 개량된 뽕나무에서 얻은 오디가 아닌가 했다. 1킬로그램에 만원정도를 호가하고 있었다.